

#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住生活空間 利用에 對한 研究

— 晩翠堂에서의 通過儀禮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Resident Living Space  
in Upper Class Residence of CHO - SUN Dynasity.

— Through the Rites of Passage in the MAN-CHUI-DANG—

白 永 欽\*

Baek, Young Houm

鄭 明 燮\*\*

Chung, Myung Sup

---

## Abstract

This study has researched on the utilization of living space through interview with a owner of the MAN-CHUI-DANG.

The aim of the study is to grasp the resident living and dwelling ceremony through rites of passage of the MAN-CHUI-DANG among the upper class residence of Korean traditional house. A result of this study ; Korean traditional house have been so inhered multipurpositive and adaptability that dwelling living space for the rites of passage is always separation, transition, coordination as living aspect.

---

## I. 研究의 目的

住宅이란 人間이 이 地上에 安住하기 위한 必須的인 具體的 空間이며, 人間存在의 實體的 表現體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집에서 사는 것을 意味

하며, 이는 곧 사람이란 집에서 나서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는 그런 存在임을 뜻한다.

따라서 人間の 出生에서 부터 喪禮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通過儀禮는 住生活空間內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通過儀禮에 따라 空間이 分離되어지기도 하고 轉移, 統合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

\* 正會員, 大邱大學校 住生活學科 副教授

\*\* 正會員, 大邱大學校 住生活學科 講師

이러한 觀點에서 本研究는 韓國傳統建築內에서 行해지는 通過儀禮<sup>1)</sup>에 따라 演出되어지는 住生活空間의 利用方法을 考察하고, 이에 따른 住居空間의 利用方法과 特性을 分析하여 傳統的 住生活과 住意識을 把握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자 한다.

## II.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朝鮮時代에는 儒敎를 政敎의 最高原理로 崇奉하였으며, 그 結果 儒敎는 國民精神의 理想이 되었고 民間神仰의 核心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儒敎的인 思想은 家族制度에도 影響을 미쳐 朝鮮時代의 社會基本單位는 個人이 아니라 家族으로, 그것도 家父長的인 家族이었고 또 大家族制度였다. 이러한 大家族制度는 住宅建築에 自然히 그 影響을 미치게 되었으며, 住宅 中에서도 上流住宅에서 이러한 影響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本 研究의 對象建物로는 重要民俗資料 第175號로 指定되어 있는 晚翠堂을 選定하였는데, 選定理由로는 이 建物이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要素를 고루 갖춘 좋은 建物이기도 하지만, 所有者가 慶尙北道 文化藝術課 學藝官으로서 이 分野에 대한 學識이 깊어 面談內容의 正確性과 容易性을 期待하였기 때문이다. 調査期間은 1989年 6月 18日 부터 24日 까지 1周間이었는데, 建物의 實側調査와 2次에 걸친 面談과 觀察을 實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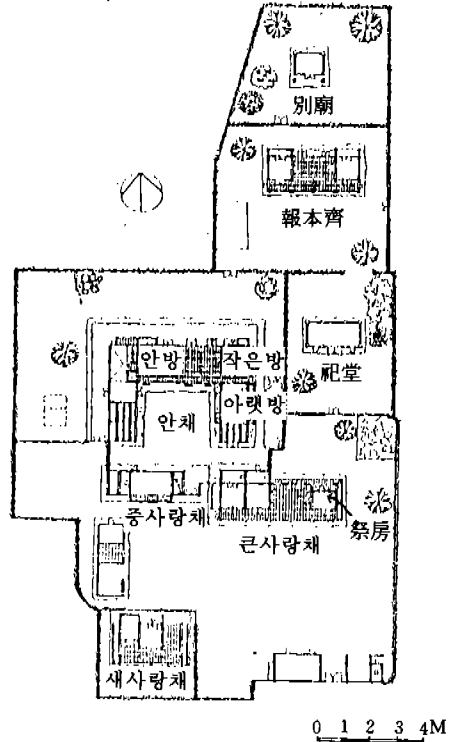
## III. 晚翠堂의 概要 및 住生活空間分析

### 1. 晚翠堂의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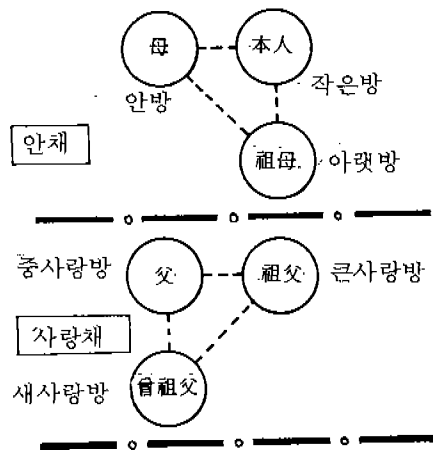
晚翠堂은 朝鮮 宣祖時의 性理學者인 之山 喜好益 先生의 七世孫으로, 朝鮮 正祖五年(1781年)에 全羅道 兵馬節度使를 지낸 바 있는 曹學臣 先生(1732年~1800年)이 지은 살림집이다.

晚翠堂은 慶北 永川郡 琴湖邑 玉城洞의 中心部에 南向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配置形態는 一字型의 사랑채와 冂型的 안채로 이루어진 ㄷ口字型的 正寢을 中心으로 사랑채의 前面에는 새사랑채와 마굿간채를 두었으며 안채의 右側에는 祀堂을 두

었다. 祀堂 뒤에는 報本齋와 別廟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建物들은 새사랑채인 光明軒과 함께 後代에 追建된 것이다.



〈圖-1〉 晚翠堂의 配置平面圖



\* 本人 : 現所有者

〈圖-2〉 晚翠堂의 四代 居處空間

1) 通過儀禮란 프랑스의 V. GNNP에 의해 命名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人生儀禮, 人生고비, 一生儀禮, 平生儀禮라고도 한다.

2. 住生活空間 分析

2-1. 안채

안채는 二通間 안방과 二間大廳을 中心으로 左

右에 兩翼을 달아내어 \*型的 平面을 이루고 있는데, 左側에는 三通間 부엌과 二間 庫房을, 右側에는 二間的 아랫방과 마루를 두었다. 안채에서의 空間機能과 性格은 다음과 같다.

(表-1) 안채의 住生活空間

| 空間名 | 使用人                 | 空間機能                    | 空間性格 | 備考   |
|-----|---------------------|-------------------------|------|------|
| 안방  | 안주인                 | 就寢, 室內家事勞動<br>育兒, 貴重品保管 | 閉鎖的  | 內部空間 |
| 안대청 | 안주인<br>直系尊, 卑屬      | 通路, 집안大事<br>接客, 避暑      | 開放的  | 內部空間 |
| 작은방 | 며느리<br>乳兒期 子女       | 就寢, 育兒, 新房              | 閉鎖的  | 內部空間 |
| 아랫방 | 祖母                  | 就寢, 貴重品保管               | 閉鎖的  | 內部空間 |
| 부엌  | 안주인<br>며느리<br>女性使役人 | 炊事, 暖房<br>食器, 飲食物保管     | 半開放的 | 內部空間 |
| 마룻방 | 祖母                  | 夏季 就寢, 收納               | 半閉鎖的 | 內部空間 |
| 庫房  | 안주인<br>며느리<br>女性使役人 | 곡식 및 장독 갈무리             | 半開放的 | 內部空間 |
| 안마당 | 直系尊, 卑屬             | 집안大事<br>室外家事勞動          | 開放的  | 外部空間 |

\* 面談者 曹翊鉉氏 基準 : 안주인(母親), 며느리(婦人)

2-2. 사랑채

晚翠堂에는 四代가 함께 居住하였던 關係로 3個의 사랑채가 있다.

晚翠堂이라 扁額한 큰사랑채는 큰사랑방과 사랑마루, 祭房이 連接하여 있는데, 前面에는 半間的 退間을 두었으며, 큰사랑방 뒤에는 冊房과 골방을 두었다. 중사랑채는 큰사랑채와 中門을 사이에 두고 자리잡고 있는데, 二通間的 중사랑방과 一間的 사랑마루로 構成되어 있다.

새사랑채는 大門채의 左側에 別途로 一廓을 이루며 자리잡고 있다. 새사랑채의 平面은 二間的 사랑방과 一間的 사랑마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前面에는 退間을 두었으며 左側房은 半間가량 뒤로 물려 獨自의인 空間을 가지게 하였다.

2-3. 祭禮儀式空間

家廟法에 따라 朝鮮時代 中上流住宅에 建立된 祭禮儀式空間은 祖上의 位牌를 모시고 祭祀를 지

내는 空間으로, 廟는 福의 根源地로 重要하게 생각하여 해가 뜨는 陽의 方向인 正寢의 東北쪽에 자리하고 있다.

晚翠堂의 祭禮儀式空間은 別廟, 報本齋, 祀堂의 3채로 構成되어 있는데, 各 채는 모두 담장을 둘러 別途의 空間을 이루고 있다.

別廟는 前退가 있는 一間 規模의 맛배집인데, 住宅內에서 가장 神聖視되는 空間으로 東北쪽의 가장 뒷쪽에 자리잡고 있다.

祀堂은 正面 三間 規模의 맛배집으로 正寢의 右側에 있다. 報本祭는 別廟와 祀堂사이에 配置되어 있는데, 祭官들이 居處하는 祭廳의 機能을 가진다.

IV. 通過儀禮에 따른 住生活空間 利用

通過儀禮는 場所, 狀態, 社會的地位, 年齡 等の 變化에 따른 儀禮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떤 個人

〈表-2〉 사랑채의 住生活空間

| 채 명   | 空間名   | 使用人            | 空間機能                  | 空間性格 | 備考   |
|-------|-------|----------------|-----------------------|------|------|
| 큰 사랑채 | 큰사랑방  | 父              | 就寢, 學問, 思索<br>接待, 社交  | 半開放的 | 內部空間 |
|       | 사랑大廳  | 父<br>直系尊, 卑屬   | 接待, 思索, 避暑            | 開放的  | 內部空間 |
|       | 冊房    | 父, 子女          | 學問, 書冊保管              | 閉鎖的  | 內部空間 |
|       | 글방    | 父              | 書冊保管, 趣味生活            | 閉鎖的  | 內部空間 |
|       | 祭房    | 直系尊, 卑屬        | 忌祭祀                   | 閉鎖的  | 內部空間 |
| 중 사랑채 | 중사랑방  | 本人             | 就寢, 學問, 思索,<br>接待, 社交 | 半開放的 | 內部空間 |
|       | 중사랑大廳 | 本人<br>直系尊, 卑屬  | 接客, 思索, 避暑            | 開放的  | 內部空間 |
| 새 사랑채 | 새사랑방  | 祖父             | 就寢, 學問, 思索,<br>接待, 社交 | 半開放的 | 內部空間 |
|       | 새사랑大廳 | 祖父<br>直系尊, 卑屬  | 接客, 思索, 避暑            | 開放的  | 內部空間 |
|       | 사랑마당  | 直系尊, 卑屬<br>使役人 | 집안大事, 室外雜役            | 開放的  | 外部空間 |

〈表-3〉 祭禮儀式空間

| 채 명 | 空間名 | 使用人     | 空間機能             | 空間性格 | 備考   |
|-----|-----|---------|------------------|------|------|
| 別廟  | 別廟  | 直系尊, 卑屬 | 遞遷位奉祀            | 閉鎖的  | 內部空間 |
| 祀堂  | 祀堂  | 直系尊, 卑屬 | 直系尊屬 神位奉祀        | 閉鎖的  | 內部空間 |
| 祭廳  | 祭官房 | 直系尊, 卑屬 | 祭官 就寢, 飲福,<br>對話 | 半閉鎖的 | 內部空間 |
|     | 大廳  | 直系尊, 卑屬 | 飲福, 休息, 對話       | 半開放的 | 內部空間 |

이 새로운 地位, 身分이나 狀態를 通過할 때 行해지는 여러가지의 儀禮와 儀式을 總稱한다.

이러한 通過儀禮는 民族이나 文化에 따라 形態上 또는 機能上的 差異를 보이며, 같은 民族이라도 地域과 門中에 따라 多少의 差異를 보이고 있

다.

本考에서는 極히 限定的이지만, 晚翠堂에서 行해지는 各種儀禮가 住生活空間에서 어떻게 利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1. 出生, 痘, 生日儀禮

#### 4-1-1. 出生

出生儀禮는 人間이 一生동안 겪어야 하는 過程 가운데 가장 일찍 맞이하는 儀禮行爲이다.

晚翠堂에서는 新房인 작은방에서 解産을 한다고 한다.

出産 後에는 大門에 金줄을 치고 出産한 집과 社會를 隔離시킨다. 이 때 안채 空間 중 머리방은 聖域化되면서 家族 以外의 訪問客은 出入이 禁止된다. 産母는 머리방에서 初七日을 보낸 後 自己認識의 空間인 부엌을 드나들면서 家族 性集團과 社會와 再結合을 이루게 한다.

出生儀禮시 晚翠堂에서의 住生活空間은 住居空間 全體가 社會와 隔離될 뿐만 아니라 안채로의 出入이 平素보다 制限되므로써 住生活空間이 再次 分離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1-2. 痘

痘은 아기가 出生하여 처음 맞이하는 첫 産日을 말하는데, 初度日, 日(쉬일), 周日, 周年 等으로 불린다. 晚翠堂에서의 痘行事는 머리방에서 行해 지는데 이날은 고기국 또는 미역국, 나물, 痘떡 등을 장만하여 親戚과 이웃이 모여 아침식사를 같이 한다. 이날은 平素 閉鎖적이던 안채가 多少 制限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開放性을 띄게 되는데, 이는 平素 分離되어 있던 住生活空間이 一時的으로 統合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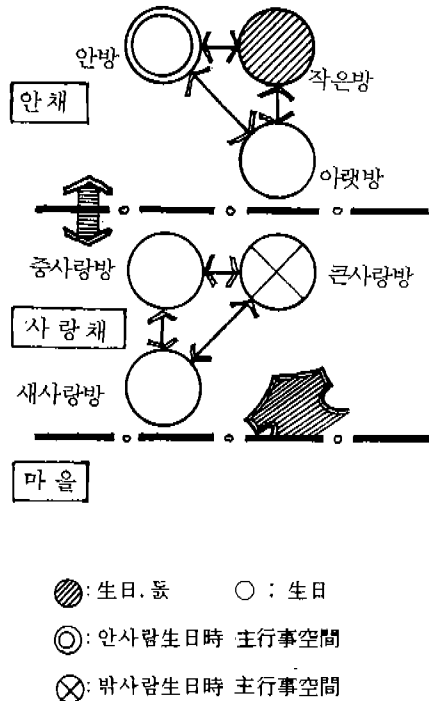
#### 4-1-3. 生日

生日은 사람이 이 世上에 태어났다는 것과 一生 동안의 健康, 無事, 長壽, 榮華를 祝願하고 祝福을 받는 紀念的인 行事로서, 이날은 平常時보다 飲食을 조금 더 準備하여 親戚과 이웃이 모여 生日을 自祝한다.

晚翠堂의 生日行事는 家族構成員 各自의 居處空間에서 베풀어진다. 男性은 큰사랑방을 中心으로, 女性은 안방을 中心으로 아침식사를 한 후, 生日을 맞이한 當事者의 居處空間에서 간단한 茶菓會를 行하는데, 이는 住居空間內에서의 内外法에 따른 것이다.

### 4-2. 冠禮儀禮

冠禮는 어린이가 成年이 되었음을 像徵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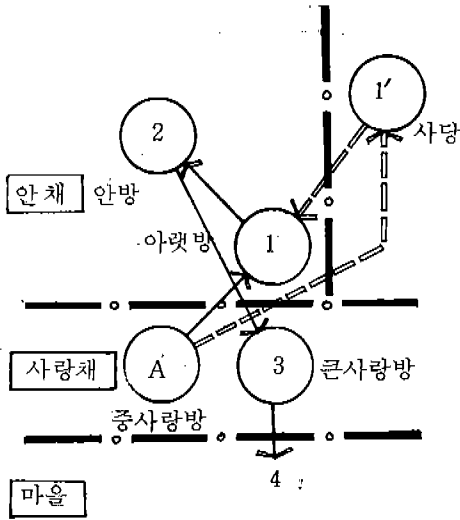


〈圖-3〉 出生, 痘, 生日時 住生活空間利用

하여 男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女子에게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儀式인데 女子인 境遇에는 이를 계례라고 한다.

晚翠堂의 冠禮는 面談者가 直接 經驗한 바를 土臺로 살펴 보았는데, 이 當時 面談者는 중사랑방에 居處하고 있었으며 이때 祀堂에는 神位를 모시지 않고 紙榜祭祀를 지냈기 때문에 祀堂儀式은 除外되었다고 한다. 面談者는 結婚 이틀 전날 午前 10時에 儀式을 行하였는데, 儀禮節次는 먼저 紺靑布를 입고 아랫방의 祖母님과 안방의 母親께 問安을 드리고 큰사랑방에 들어 父親과 집안어른께 拜한 後 祝賀宴을 가졌으며, 그 다음 이웃의 어른들을 直接 訪問하여 問安을 드렸다고 한다.

冠禮行事는 住宅內에서 가장 開放的인 큰사랑채에서 泰宴이 行해진 後 마을로 이어지는데, 이는 冠禮行事が 社會的인 性格을 띄면서 住宅 内外가 融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A : 現所有者의 冠禮當時 居處空間
- 1' : 祖上神位
- 1 : 祖母 2 : 母 3 : 父 4 : 이웃어른
- ↑ : 祠堂에 神位가 없을 경우 行事順序
- ↑ : 祠堂에 神位가 있을 경우 行事順序

〈圖-4〉 冠禮時 住生活空間利用

4-3. 婚禮儀禮

婚禮는 男女間의 結合을 一定한 儀式을 거쳐서 社會的으로 公認받는 儀禮이다.

婚禮儀禮는 地方에 따라 節次와 方法에 있어 多少의 差異가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는 面談者를 中心으로 한 新郎집에서의 儀禮를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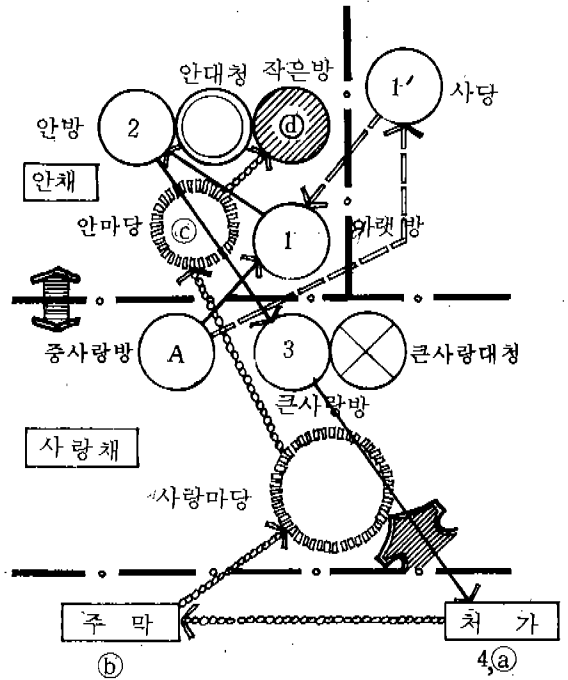
婚姻날 大禮를 올리기 위해 新婦집으로 떠나는 것을 初行이라 하는데 面談者의 境遇는 妻家가 安東인 關係로 하루 일찍 떠났다고 한다.

初行날은 떠나기 前에 안채에 가서 먼저 人事를 드린 후 사랑채에 가서 人事를 드리고 出發하는데, 晚翠堂에서는 當時 神位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別告祀는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新郎이 出發하고 나면 新郎집에서는 婚禮잔치가 안채와 사랑채에서 大的으로 베풀어진다. 新婦집에서 大禮를 마친 後 新郎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新行이라 하는데, 新行 때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

지 않고 마을 入口의 酒幕에서 一旦 居處한 후 집에서 보내온 가마를 타고 들어와 新房(작은방)에서 居處하였다고 한다.

婚禮가 行해지는 동안에는 안채와 사랑채가 一時的으로 統合되면서 活用되어지지만 儀式이 끝나고 素宴이 베풀어질 때에는 內, 外의 空間이 完全히 區分되는데, 이는 儒敎的인 思想을 遵守한 傳統住宅空間의 多目的性과 融通性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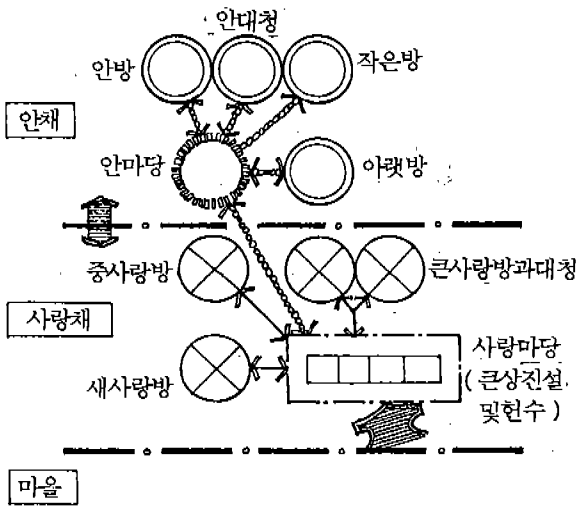
- A : 現所有者의 婚禮當時 居處空間
- : 新房
- : 안사람(親戚+이웃) 行事空間
- ⊗ : 밖사람(親戚+이웃) 行事空間
- ⊙ : 室外行事空間
- ↑ : 別告祀가 없을 境遇 初行順序 1-4
- ↑ : 別告祀가 있을 境遇 初行順序 1'-4
- ↑ : 新行順序 (㉑~㉒)

〈圖-5〉 婚禮時 住生活空間利用

4-4. 回甲儀禮

回甲은 사람이 태어난 後 干支가 한바퀴 돌아오는 61세가 되는 해에 치르는 儀禮로서, 이 날은 子孫들이 獻壽하며 回甲宴을 베푼다.

晚翠堂의 回甲儀禮는 아침에 當事者의 居處室에 平素보다 잘 차린 아침상을 올리고, 午前 11時에서 12時 사이에 큰상을 陣設한다. 큰상은 親戚들과 訪問客 數를 豫想해서 大廳이나 마당에 遮日을 치고 차리는데, 晚翠堂에서는 사랑마당에 차린다고 한다. 사랑마당에 遮日을 치고 큰상을 4個 놓고 陣設한 後 當事者 內外분을 모시고 獻壽를 한다. 獻壽가 끝나면 큰상을 물리고 안사람들은 안채에서, 바깥사람들은 사랑채에서 잔치를 베푼다.



〈圖-6〉 回甲時 住生活空間利用

4-5. 喪禮儀禮

喪禮는 人間이 죽음이라는 嚴肅한 事態에 直面하여 死者를 敬重히 모시는 儀式인 만큼 儀禮 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禮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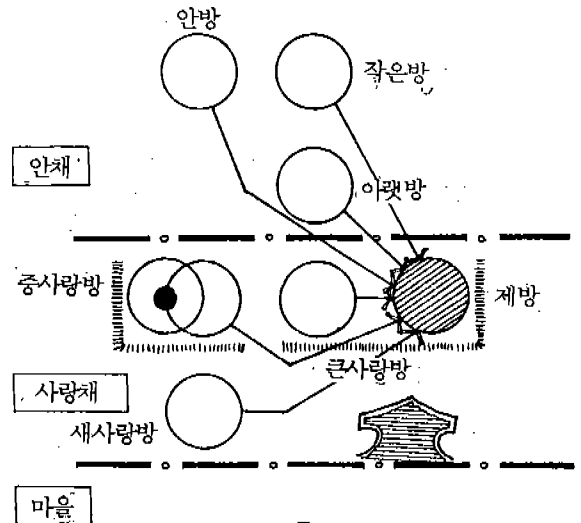
朝鮮時代의 喪禮는 崇儒抑佛 政策으로 인하여

佛敎儀式은 사라지고 儒敎儀式만이 行하여 졌다. 그러나 朱子家禮는 中國의 風習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 實情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歲月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게 되었으며 家門마다, 地方마다 多少의 差異가 있다.

一般의인 喪禮節次는 初終-습-소렴-대검-成服-治葬-친구-발인-虞祭-卒哭-부-小祥-대상-담제-길제 등으로 이어지나 여기서는 晚翠堂에서의 喪禮를 以上の 節次와는 關係없이 住居空間의 利用을 中心으로 살펴보았다.

臨終은 死者의 居處空間에서 하며, 빈소는 큰사랑채의 祭房에 마련된다고 한다. 그러나 承重喪을 당할 境遇에는 중사랑채에 또 하나의 빈소를 마련한다고 한다.

喪禮의 儀式은 開放的인 사랑채와 사랑마당에서 이루어지고 弔問客의 接待를 위한 음식마련은 女性空間인 안채에서 行해지는데, 이는 철저한 內外空間 區分 아래 行事가 進行되는 동안 사랑채는 主空間으로 안채는 서비스空間으로 住生活空間을 最大限 利用할 수 있도록 動線體系가 무리없이 形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圖-7〉 喪禮時 住生活空間利用

4-6. 祭禮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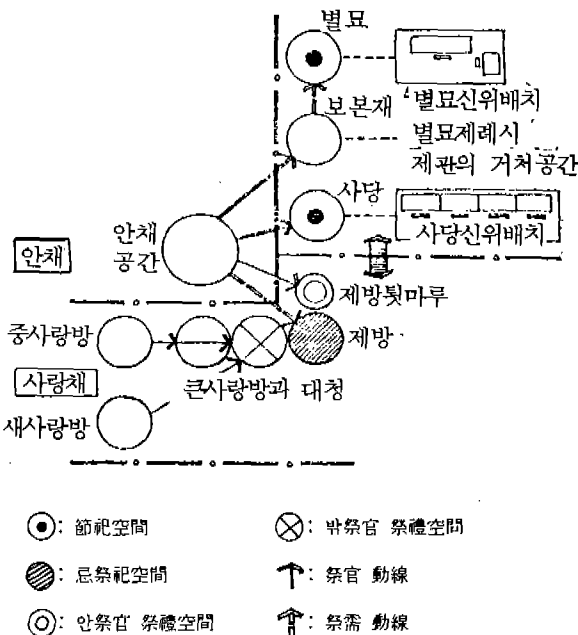
祭禮는 神命을 받들어 福을 빌고자 하는 儀禮로, 우리나라에서 普偏化되기 시작한 것은 中國의 儒學에 影響을 받은 後일 것으로 推測된다.

祭禮는 忌祭와 節祀, 墓祭가 있으나 여기서는 住居空間 內에서 이루어지는 忌祭와 節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節祀는 別廟와 祀堂에서 行해지는데 別廟에서는 遞遷位인 面談者의 五, 六代祖 神位를 曲設位로 配設하여 奉祀하고, 祀堂에는 高祖, 曾祖, 祖父, 父의 四代祖 神位를 直設位로 配設하여 奉祀하고 있다.

遞遷位 祭禮때는 平素에 使用하지 않던 祭廳인 報本祭가 一하게 利用되는데 여기에 祭官들이 居處하게 된다.

忌祭는 祀堂의 神位를 큰사랑채의 祭房에 모셔와서 지낸다고 한다. 忌祭때 밖祭官은 큰사랑大廳에 서고, 안祭官은 祭房 뒤쪽의 뒷마루에 서게 되는데, 祭房 뒷편의 뒷마루를 큰사랑大廳 뒤 뒷마루보다 規模를 크게 한 것은 안祭官 數와 飲食物의 搬出入을 考慮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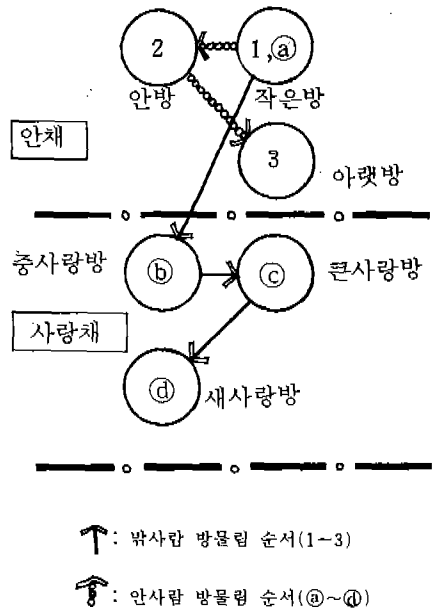


〈圖-8〉 祭禮時 住生活空間利用

4-7. 대물림 (방물림)

대물림은 안채와 사랑채에서 이루어지는 살림 아들 內外에게 물려주고 居處空間인 房까지도 물려주는 寬行으로 主로 慶尙道地方에서 行해지던 習俗이다. 안살림의 대물림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간과 도장워 열쇠가 달린 열쇠패를 넘겨주는 것으로, 대개 며느리가 시집와서 아이를 낳고 살림살이의 內容을 알만할 때 權限을 넘겨주게 된다.<sup>2)</sup>

밖살림의 대물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田畵文書 등의 重要文書를 넘겨주는 것인데, 바깥살림의 대물림이 안살림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 理由는 長幼有序를 表榜한 社會였던 만큼 사랑채의 主要機能인 손님접대를 비롯해서, 집안과 家門을 代表하는데는 어느정도 나이가 들어



〈圖-9〉 대물림時 住生活空間利用

註 2) 全羅, 忠淸, 京畿道 等에서는 父母生前에 대물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濟州道에서는 아들內外가 結婚하면 안거리(안채)를 내어주고 밖거리(사랑채)로 물려나 따로 生計를 꾸려가는 高枋물림 이란 寬行이 있다.



야 適合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살림권의 移讓과 함께 居處空間을 물려주는데, 안채의 境子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주고 머리방으로 옮기고, 사랑채의 境子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사랑방을 내어주고 작은사랑방으로 물려난다. 晩翠堂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寬行에 따라 살림권의 移讓과 함께 居處空間을 옮겼는데, 안사람은 작은방에서 시작하여 안방, 아랫방의 順으로, 바깥사람은 작은방에서 중사랑방, 새사랑방의 順으로 移動한다. 또한 이들의 居處空間에는 各其獨自의 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마루방, 고방, 부엌 등의 附屬空間이 있는데, 이는 分散된 住居空間 內에서의 圓滑한 住生活을 위한 計劃的인 考慮로 생각된다.

## V. 結 論

朝鮮時代 上流住宅인 晩翠堂에서의 住生活空間 利用에 대하여 通過儀禮를 中心으로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1) 回甲儀禮를 除外한 모든 儀禮의 주된 儀式은 住宅內部空間에서 이루어지며, 住宅外部空間은 補助的으로만 利用되었다.
- 2) 各種 儀禮의 中心空間은 非社會的인 안방과 社會的인 사랑방이며, 이들 房이 住生

活空間 中에서 가장 利用度가 높았다.

- 3) 開放的인 사랑채가 住宅의 內外空間을 分離, 統合하는 媒介空間으로서 가장 많이 利用되었다.
- 4)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內, 外部空間의 主通路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室外屋室 役割을 하여 各種 行事時의 室外行事場으로 利用되었다.

## 參 考 文 獻

1.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第1卷(社會構造, 冠婚喪祭), 高大民俗文化研究所 出版部, 1980.
2. 金光彥, 韓國의 住居民俗誌, 民音社, 1988.
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螢雪出版社, 1987.
4. 申榮勳, 韓國의 살림집, 悅話堂, 1987.
5.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查, 朝鮮總督府, 1929.
6. 李榮鎭, 韓國 農村의 住居空間에 關한 文化人類學的 研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0.
7. 李光奎 外 2人, 韓國民俗學概說, 普成文化社, 1982.
8. 韓相福 外 2人, 文化人類學概論, 서울大學校出版部, 1986.

